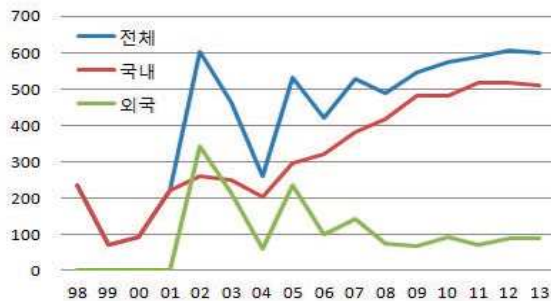


요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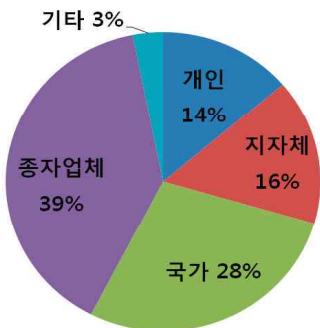
1. 식물 신제품보호

- 현재까지('13.12)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의 약 69%가 등록 완료
 - 출원된 품종은 6,832품종(누적)이며 이 중 등록된 품종은 4,736품종(누적)
 - 국제식물신제품보호동맹(UPOV) 71개 회원국 중 세계 8위 수준(최근 5년간 출원기준)
 - *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 : ①유럽연합, ②미국, ③중국, ④일본, ⑤우크라이나, ⑥네덜란드, ⑦러시아연방, ⑧한국, ⑨캐나다, ⑩호주
 - '14년 상반기 중으로 품종보호 출원은 7천품종, 등록은 5천품종 돌파 예상
- 전체 출원 건 중 국내출원이 77%(5,256품종), 외국출원이 23%(1,576품종) 차지
 - 국내출원 순위 : 국가(1,841) > 종자업계(1,356) > 지자체(1,036) > 개인(822) > 기타(201)
 - 외국출원 비율은 '09년 이후 14%대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훼작물 위주로 출원

[연도별 국내 및 외국의 품종보호출원 동향]



[출원주체별 구성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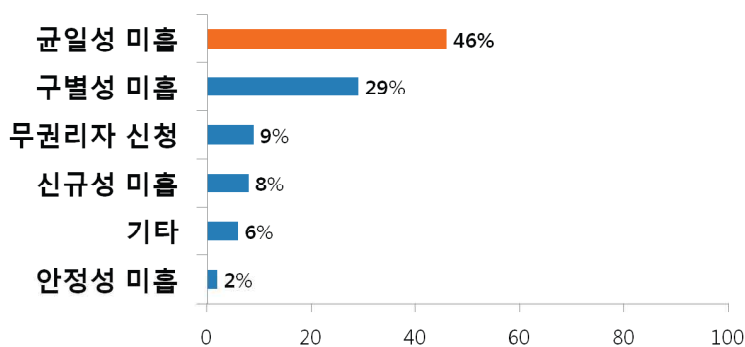


[출원주체별 국내·외 구성 비율]



- '13년 품종보호 출원 품종 수는 전년대비 1% 감소, 등록 품종 수 3% 증가
 - '13년 품종보호 출원 품종 수는 599품종으로 전년(606품종)대비 7품종 감소하였고, 품종보호로 등록 완료된 품종은 459품종으로 전년(444품종) 대비 15품종 증가
 - '13년에는 온주밀감, 다래, 털다래, 살구, 구아바, 양마에서 처음 품종보호 등록
 - 최근 출원·등록되는 품종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내재해성, 고기능성, 내병충성이 강화된 품종과 신규 대상작물 품종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
- 품종보호로 출원된 품종 중 심사가 완료된 비율은 82%이며, 이 중 품종보호로 결정된 비율은 86%, 거절 및 취하 비율은 14%였음
 - 심사완료율 82% : 품종보호출원 6,832품종 중 심사완료 5,609품종(누적)
 - 심사완료 품종 중 품종보호결정율 86%(4,835품종), 거절 및 취하율 14%(774품종)
 - 거절 이유 : 균일성 미흡(46%) > 구별성 미흡(29%) > 무권리자가 신청(9%) > 신규성 미흡(8%) > 기타(6%) > 안정성 미흡(2%) 순임

[거절이유별 구성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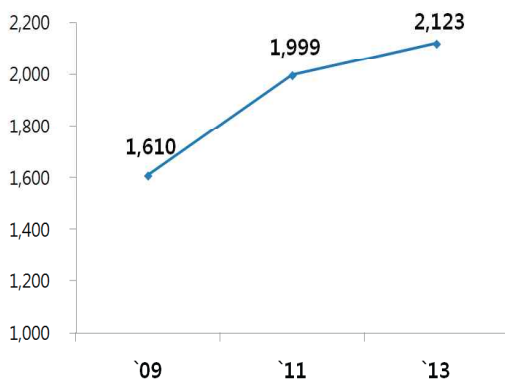


- 품종명칭은 총 33,453건(누적)이 등록되었으며, 연평균 1,590건 (최근 3년)내외 등록('13년은 1,616건 등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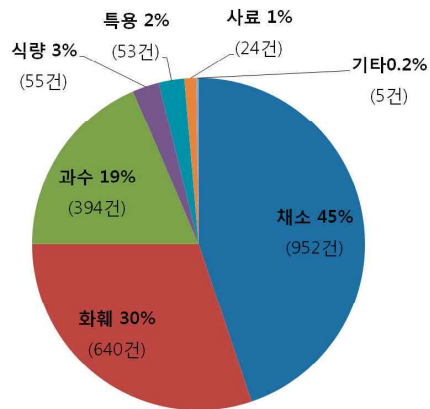
2.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

- '13년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37% 증가하였으며, 작물별 신고비율은 채소작물이 45%로 가장 높음
- '13년 12월 기준 총 43,237건이 신고되었으며 '13년에는 2,123건이 신고되어 전년(1,547)대비 37%(576건) 증가
 - '13년 신고된 2,123건 중 중복신고 제외 시 331작물, 1,852품종이 신고됨
- '13년 생판신고는 채소, 화훼, 과수작물이 94% 차지
 - 작물별 신고비율('13) : 채소 45% > 화훼 30% > 과수 19% > 식량 3% > 특용 2% > 사료 1%

[생산·수입판매신고 건수(누적)]



[생산·수입판매신고 작물별 구성비]



3. 민간육종가

- 민간육종가 수는 민간육종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('06) 후 증가 추세
 - '05년 이전 175명이었던 민간육종가 수는 '13년 기준 589명에 이룸
 - 작물별로는 화훼분야 민간육종가 수가 48%(282명)로 가장 많으며, 화훼·과수·채소분야 민간육종가가 전체의 80%를 차지함
- '13년 품종보호 출원 품종 중 민간육종가가 육성한 품종은 18%이며 과수 작물의 경우에는 43%가 민간육종가 육성 품종임
- '13년 6월 「종자산업법」에서 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이 분리·제정되면서 신품종 육종가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음